

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woman standing in a hallway. She is wearing a patterned jacket and glasses. To her right is a dark door with a sign that reads "독서의 문화" (Culture of Reading) and the years "784-2003" and "784-2004". In the background, another person is visible near a bookshelf.

환경보존의 파수꾼은 주부와 女性임무 피해자사례모집

때문에 지못하다 시작이
는 각오로 임하지만, 앞으
로 무척 힘을가라는 예
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.

▶ **법률정책의 화살표**의
관한 관심은 국정화에도
잘 나타나고 있다. 화살표
제 법안의 발의와 서울시
정수장 오염, 연탄공약수
변의 집폐소환자 원점문
제, 인천해양오염 등을 통
해 헌정조사를 통해 법안
다.

▶ **우리들의 산업화**가 이제
30년으로 접어들면서 누적
된 공해문제가 실제 생활
에 드러나는 거지. 많은
사례들이 피해자를 위한
법적 제도도 마련돼 있지
않아 우리 '노생전화'팀은
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
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일
에 활동방향을 맞추고 있
습니다.

▶ **노생의 전화**가 하는 일은
환경오염예방, 환경오염피
해구제, 중금속기법의 오염
방지시설설치·운영 등에
필요한 법률신안들을 받고
있으며, 상담 내용에 따라
현직조사, 관계기관의 협
조요청 등 신안실시의 후속

회원을 공개모집할 것이니
고한다.

朴正충재는 이번엔 환경
문제를 다루면서, 느끼진
것은 기업과 행정부가 환
영에 대한 위기의식이 절
실하지 못하다며 기업인과
행정부의 자각을 촉구하
고 하였다.

『모든 환경오염은 국민
이 가져야자, 피해자이
기도하다. 다른것에 비해
공해만은 우리가 아주 작
은 일에서부터 충분히 실
천하므로써 환경오염을 예
방할수 있다. 국민은 공해
를 만들지 않는 일, 기업
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
는 일, 정부는 환경보존정
책을 시행해 시행하는 일
등이 그것이다』고 하며,
특히 『환경보존의 파수꾼
은 여성들이며, 그중에서
노 주부들이 그 역할을 해
주어야 한다』고 강조하였
다.

유난히 수주한 옷차림과
일에 전념하느라 흐트러진
머리무새를 바로 잡는 朴
부총재의 모습에서 국민을
위해 일하는 정치인의 모
습을 보고 있는 듯했다.

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당
내용의 처리결과를 회신해
주고 있다.

현재 녹색의 전화팀은
박의원이 국회에서부터
회의를 이루었던 전문가
를가 자원봉사자들이
협력체를 그대로 유지하고
있다.

상담료는 무료이고 아직
아무 기금도 없으며 녹색
의 전화 활동이 활성화되